



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군요

진병수/성상담, 성교육전문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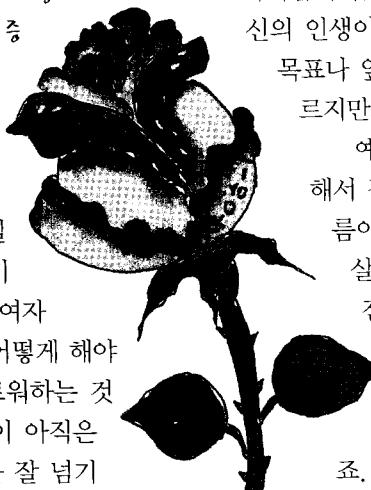
절 이래 고3 졸업생인데요. 나이가 들면 할 줄 알았던
성 팔계를… 아직 졸업도 하지 않은 나이에 하게 되었습
니다. 제 여자친구와는 아주 친해서 그 애의 생리주기까
지 다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번달 그 애의 생리 날짜가
지났는데도 여자친구가 생리를 하지 않습니다. 제 여자친
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지내는데 저는 계속 불안하고
말약에 임신이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됩니다. 제가 알기
로는 임신이면 생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
게 하죠??? 가르쳐주세요. 임신이면 어떤 증
상이 나타나는지 흐… 하루하루가 불안합니
다. 그리고 말약에 임신이면 낳으면 안되
는데, 어떻게 해요???

자 신이 정해 놓았던 시기보다 일
이 빨리 벌어진 것에 대해 자기
스스로 당황해 하고 있군요. 여자
친구에 대한 걱정보다 자신의 앞날, 어떻게 해야
할지에 대한 막막함 때문에 더 괴로워하는 것
같아요. 그리고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아직은
실감나지 않고 어떻게든 이번 고비를 잘 넘기
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하겠죠. 그 심정 이해가
될 것 같답니다.

직접 당사자인 여자친구는 겉으로 보기에 아
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더 초조하고 걱정이 앞선
다는 것은 빨리 악몽에서 벗어나 제자리로 돌아가
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겠죠.

현재 여자친구가 아무런 표현을 안한다고 하
니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.

여자친구와 이 부분에 대해 진지한 대화가 필요
할 것 같아요. 생리할 때가 지나지 않았는지, 몸에



어떤 이상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, 어떤 생각을 하
고 있는지 즉, 임신이라면 말이죠. 이런 대화부터
시작하세요. 공연히 혼자 조바심 내지 말고요.

임신을 하면 안 된다고 했죠. 즉 아기를 낳을
수 없기 때문에. 어째서 아기를 낳으면 안되나요.
안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. 아기 아버지가
되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겠죠.

아니랍니다. 일찍 아버지가 된다고 해서 자
신의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. 인생의
목표나 앞날의 계획을 수정해야 할지 모
르지만….

예정되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고
해서 절망하고 자신의 앞날에 검은 구
름이 끼는 것은 아니랍니다. 세상을
살아가면서 자신의 계획대로 정해
진 길로만 갈 수는 없겠죠. 때로는
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
야할 때가 있고, 미처 생각하
지 못했던 고비를 맞기도 하
죠. 엉뚱한 일이 일어나 좌절을 겪기
도하면서 말입니다.

아직 확인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절망하고 좌
절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. 임신여부를 확인 한
후에….

그리고 쉽게 아버지가 될 수 없다고 하지 마세
요. (지금 결과를 예측해서 충분히 고통받고 있긴
하지만)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한 이후에 그래도
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신에게 이
해시킨 다음, 그런 아픔이 있고 난 다음에 결정하
세요. ■■■